

2026 봄 워크숍 <해방의 온도> 품평회

*품평회는 과거를 탓하는 자리가 아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. 원색적인 비난은 지양하며, 개선 방향에 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*마찬가지로, 품평회는 공적인 자리입니다. 개인 간에 가졌던 감정은 이후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*품평회는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공연 준비 과정에서 좋았던 부분에 관해 얘기한다면,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.

이름: 김혜림

역할: <춤추며 간다> 연출

1.<해방의 온도>를 함께 하면서 느낀 점	
<p>배우와 연출 중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연출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. 열정 있는 팀원들과 함께 연극을 제작할 수 있어서 좋았고,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고 간 것 같다. 1년 전에 연출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,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연출을 하고자 했는데 확실히 이번에 연출을 하면서 1년 전의 연출했을 때보다 성장했다는 걸 스스로 느꼈다.</p>	
2.피드백(워크숍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)	
연출	김혜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본 분석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연출을 하기 -> 배우들이 어려워 하고 있으면 그 고민에 있어 대답을 하고,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설득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다. 그래야 확신을 줄 수 있을 듯하다. - 바뀌는 부분이 생겼다면 기록하고 꼭 기억하기 -> 연출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야 하는데 가끔씩 상대방한테 이거 맞냐고 물어보거나 기억을 못 할 때가 많다. - 준비해온 건 많았으나 시간 조절을 잘 못 한 점이 아쉬웠다. - 연습 시간을 10시 30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11시나 11시를 넘어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잦았고 미리 고지하지 않아서 팀원들이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한다. - 무대스텝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한 것 같아 아쉬웠다. 	
배우	서준혁, 최연진, 홍예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때마다 아쉬웠다. - 서브텍스트 작성을 미리 하지 못 해서 연습 과정과 시간에 차질이 생겼던 점이 아쉬웠다. - 배우의 컨디션이 연습과 공연 당일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잠을 자지 못 한 채 연습을 참여하거나 공연 당일까지 컨디션 관리를 못 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연을 올리지 못 한 점이 아쉬웠다, 컨디션 관리를 잘하자!! (나도...) 	
스텝	김윤희, 김연우, 이은채

- 세웠던 일정보다 소품의 완성 진도가 느렸던 것 같았고, 연출과의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서 아쉬웠다.
 - 의소분/무대 제작 진도나 현황 공유가 잘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, 의소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었기에 무대스텝끼리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보여 아쉬웠다.

3.~에게 하고 싶은 말

연출	김혜림
----	-----

연출 하니까 더 욕심이 생겨부렀다~ 어쩔래! 이번에 연출을 하면서 욕심이 많아 이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머리 굴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, 공연 당일에 완성된 연극을 보니까 연출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, 연출을 또 하고 싶어졌지? 작년에 연출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확실하게 의견 표출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다. 다음에 연출할 때는 이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확신을 가지는 연출이 되자!

배우	서준혁, 최연진, 흥예진
----	---------------

연출하면서 배우들을 믿어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개인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세 명의 배우 덕분에 배우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부족한 저를 따라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자신의 배역에 스스로 고민하는 모습과 질문을 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! 덕분에 좋은 연극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배우가 되길 바라며!!!! 다들 배우 하십시오ㅠㅠ 다음에 배우할 때는 최고의 고점을 관객에게 보여주시길~♡

준혁: 나는너를정말아끼는데 너에게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모르겠구나 항상 너에게 장난 치는 이유는 너가 정말 사람으로서 좋아해서 그래~~ 너가 전역할 때 나는 극회에 남아있을까? 너랑 또 연극하고 싶은데 아쉽다. 너랑 지내면서 정도 많이 든 것 같아서 군대 가니까 너무 아쉬워~ 군대 잘 가고! 안전이 제일이다~ 너랑 정기공연 배우팀 하다가 같이 워크샵 팀 해서 너무 좋았어!

예진: 언니랑 드디어 워크샵 같은 팀을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나는 언니가 몰입해서 연기할 때 마다 어떻게 저렇게 몰입이 가능하지? 싶을 정도로 놀라워. 그리고 동생인 나를 따라와줘서 고마워~~~ 언니를 혜연으로 뽑은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! 사실 언니의 역량을 많이 못 끌어준 것 같아서 연출로서 아쉬웠어. 다음에는 언니랑 같이 정기공연 배우해 보고 싶다 ㅎㅎㅎ 혜연하느라 고생했어 ♡

연진: 연진을아무것도모를때... 연진이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었는데 나랑 잘 맞고 사회생활 잘하는 동생(?이었어서 좋았고 다행(?이라고 생각해서!!!! S(?인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고, 질문도 계속 해 줘서 진심으로 속으로 기뻐!! 앞으로도 극회 활동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해서 또 같이 워크샵 팀 같이 했으면 좋겠다 ㅎㅎ 그리고 정기공연도 얼렁 해라... 띠니맨날보고싶네.

스텝	김윤희, 김연우, 이은채
----	---------------

우리의 무대스텝은 어벤져스와 같습니다. 세 분 다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이번에 희곡이 무대로서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의소분/조명/음향이 할 게 많아서 조금 벅찼을까

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 해서 너무 미안하고 아쉬웠어요.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어요! 이번에 신입생분들은 특히 더 워크샵 하면서 연극에 대해 많이 알아갔으면 하고, <춤며 간다>를 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함께 워크샵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다! 정말 최고였어요~~ 고생하셨습니다!! (그리고 특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제 고민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히히)

은채: 춤추며 간다의 비주얼, 여신, 공주, 너무 착한 채채 언니!! 사실 내가 제일 걱정하던 건 음향이었어. 음향을 어떻게 찾는지만 들어봤지 무대팀 경험을 하면서 음향을 한번도 해 본 적 없어서 어떻게 가르쳐주는 게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언니가 찾으면서 스스로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고마웠고, 그만큼 만족한 음향을 찾아와줘서 좋았어! 언니가 찾은 음향 덕분에 우리의 극이 200% 더 채워질 수 있게 되어 음향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은 것 같아! 김해에서 통학하니 힘들만 한데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. 다음에도 워크샵으로 같은 팀 했으면 좋겠다~~ 고생해써!

연우: 귀여운고양이여누ㅋ 여누야 너와 친해지고 싶었고 널 본 순간부터 같은 워크샵 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짓말 안 치고 너랑 같은 팀 해서 너무 반가웠어! 신입생이라면 조명이 특히 어려웠을 텐데 스스로 공부하고 잘 찾아와줘서 마음 놓고 널 믿을 수 있게 되었던다 ㅎㅎㅎ 조명은 음향보다는 잘 아는 분야라서 더 까다롭게 봤던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하지만 이번 조명 만족하니?!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의 답을 기다리는 여누가 그림다~ 너무 고생했고 다음에 같이 정기공연 하자 히히

윤희: 윤희 언니가 우리 팀에 지원했다는 걸 보고 거짓말 안 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. 이미 성공적인 무대가 그려지더라고~ 나는 언니한테 무대를 배웠고 나의 스승이신 언니가 내 팀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기분이 신기했어. 다른 무대스텝처럼 언니도 그렇게 대했어야 하는데 나에겐 아직 존경하는 선배라 그러지 못 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기도 하고 덕분에 작년처럼 많이 배운 것 같아!! 언니 덕분에 무대 관련해서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어. 분위기도 잘 띄어주시고 다음에도 같이 팀 합시다~~ 오래오래 봐요 희희